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유경애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시 27: 1-7)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감사의 신앙” (누가복음 17:11-19)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 명을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4 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병환자 10 명이다 고침 받았지만 본문을 보면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단 한명만 돌아와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17 절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탄식하시고 질책하십니다.

감사는 구원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하는 삶이 쉽지 않고 우리의 죄성은 감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 쉽게 잊고 상처 받은 것은 두고 두고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셀 수 없는 축복들을 감사하며 만족하기 보다 그것보다 왜 더 큰 것, 더 좋은 것 주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 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평생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 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영적인 문둥병자들 이었지 않았습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자들 같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영적인 나병 환자 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욕과 고통과 조롱과 채찍을 맞으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 받았고 영적인 나병을 치료해 주셨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고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 보다 더 큰 은혜, 이 보다 더 큰 축복, 이 보다 더 큰 사랑, 이 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능력이 생기고,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고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감사할게 없어 보일 때, 원망과 불평과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나누십시오. 입 밖에 원망, 불평, 걱정 근심하는 말을 그치시고 감사를 캐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나눔으로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교회소식

1. **환영** -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전도회** - 예배 후 각 전도회 성경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3. **부장, 운영회** - 다음주일 오후 1 시에 부장, 운영회 모임이 있습니다
4. **헌장개정** - 헌장 개정을 시작합니다. 헌장개정 위원 선임과 그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됨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5. **조지아 단기선교** - 조지아 단기선교가 10 월 12-20 일에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6. **창립 가을 부흥회** - 9 월 8 일 (금)-10 일에 창립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7. **중보기도** - 교회에 아프신 분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8/13	8/20	8/27	9/03
대표기도	유경애	손다니엘	유경주	조정욱
헌화성도	심영민	성미숙	조분영	오활란/yumi choi
봉사당번	사랑구역	사랑구역	각전도회	믿음구역

행사 및 모임

9 월	창립기념부흥회	9 월 8-10 일 (금-주일)
	47 주년창립기념예배	9 월 10 일(주일)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2,011.00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정병철	510-415-4156	정주환(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Malaysia)
소망구역	유경주	510-634-9374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행복하기를 결단하며

싫은 것은 싫다고 좋은 것은 좋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위장병이나 속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고 참고 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 싫은 것을 내색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렇다고 속병이나 위장병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 놓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기쁨, 그리고 사명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기뻐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갈 때 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지 않은가 합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행복을 선택하기 보다 불행을 선택하고 있고 긍정적이고 밝은 쪽을 바라보기보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보고 있을 때 불행하게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하기를 결단해야 하고 행복한 쪽으로 발을 들어 댈야 하고 행복의 말을 해야 하고 행복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불만과 불평을 말하고 보고 듣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되지 않을 것 같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들으면 힘이 나고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선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내가 선택하고 누리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예수를 믿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선택하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선택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의 말을 선택하고 행복의 생각을 선택하고 행복의 행동을 선택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내가 행복함으로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g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